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의 인식연구

-지역 신문에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이 원 구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의 인식연구
-지역 신문에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이 원 구

이원구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7월 일



주심 문학박사 오창호 (인)

위원 정치학박사 한혜경 (인)

위원 문학박사 이상기 (인)

- 목 차 -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문헌연구	6
제 1 절 시민저널리즘의 개요	6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9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7
제 1 절 연구문제	17
제 2 절 연구방법	18
제 3 절 연구대상 선정	18
1. 설문조사	18
1) 설문지 작성	20
2) 설문조사 진행	21
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2. 심층인터뷰	26
3. 설문조사 분석방법	28
제 4 장 연구결과	30
제 1 절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30
1. 지역 언론 문제점에 대한 인식	30
2.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34

1)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34
2) 보도행태 인식도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36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38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39
3. 시민저널리즘의 도입가능성.....	40
1) 시민저널리즘의 일반적 도입가능성.....	41
2) 보도행태 인식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 차이.....	45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 차이.....	45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 차이.....	47
4.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	47
1)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48
2)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53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54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55
제 2 절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55
1.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 의향.....	55
2. 시민저널리즘의 장단점.....	57
3. 취재보도관행의 변화양상.....	59
4. 시민저널리즘 보도 경험.....	61
5. 시민저널리즘 도입분야.....	62
6. 시민저널리즘 도입의 장애요소.....	65
7. 대안으로서의 시민저널리즘.....	66
제 5 장 결론	69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69
제 2 절 결론	73

참 고 문 헌 76

부 록 79



- 표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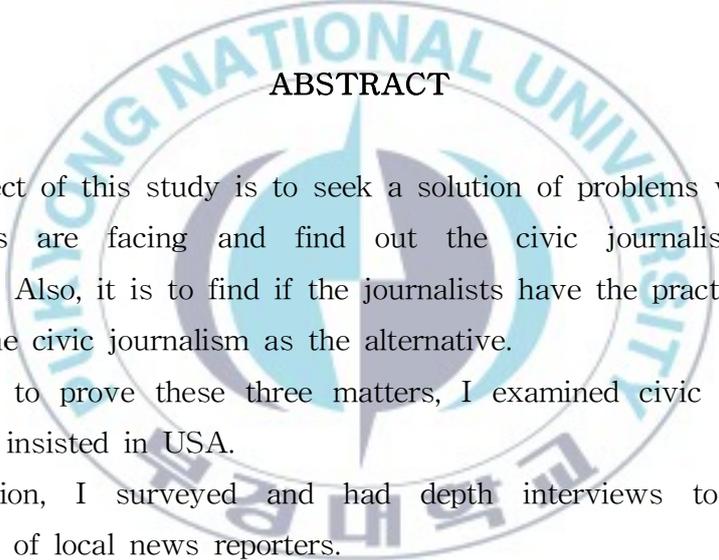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22
<표 2> 응답자 성별 분포.....	22
<표 3> 응답자 소속사별 분포.....	23
<표 4> 응답자 근무 경력별 현황.....	23
<표 5> 응답자가 과거 소속했던 부서 현황.....	24
<표 6> 응답자 소속부서별 현황.....	25
<표 7> 조사대상자의 출신별 분석.....	26
<표 8>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간략한 신상정보.....	27
<표 9> 지역신문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부.....	30
<표 10>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	31
<표 11> 지역신문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부.....	32
<표 12> 보도행태 문제점의 원인.....	32
<표 1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3
<표 14> 시민저널리즘 인식 여부.....	35
<표 15> 시민저널리즘 인식 경로.....	35
<표 16> 시민저널리즘의 자사 도입 찬반 여부.....	36
<표 17>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찬반 여부 차이.....	37
<표 1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37
<표 19>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인식/도입찬반여부 차이.....	38
<표 20>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39
<표 21> 취재/편집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찬반여부 차이.....	40
<표 22> 취재/편집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40
<표 23> 시민저널리즘의 실천정도.....	41
<표 24> 자사의 시민저널리즘 실천 정도.....	42

<표 25>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여론 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여부.....	43
<표 26> 시민저널리즘 도입이 지역신문발전에 기여할지 여부.....	43
<표 27> 시민저널리즘이 지역신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문.....	44
<표 2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	45
<표 29>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	46
<표 30> 취재/편집부서 간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	47
<표 31> 시민저널리즘 자사 도입 시 참여 의사 여부.....	48
<표 32>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우선 도입 분야.....	49
<표 33> 전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50
<표 34> 광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50
<표 35> 지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51
<표 36>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신문제작과정’상 도입수준.....	52
<표 37> 시민저널리즘 적용 기사의 게재 방식.....	52
<표 3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53
<표 39>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54
<표 40> 취재/편집부서 간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5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local journalists
in Busan·Kyungnam about civic journalism
: Focusing on the intrduction possibility in local paper

Lee, Won-Goo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eek a solution of problems which local newspapers are facing and find out the civic journalism is the alternative. Also, it is to find if the journalists have the practical will to consider the civic journalism as the alternative.

In order to prove these three matters, I examined civic journalism, which has insisted in USA.

In addition, I surveyed and had depth interviews to find the recognition of local news reporters.

The following is subjects of this study to set up through the survey.

First, How do the local journalists recognize the problem of local journalism?

Second, How do the local journalists recognize civic journalism?

As a result, the respondants recognize that local journalism has some problems. Most of them know the civic journalism in abundance sympathize the points which civic journalism insists and have the practical will.

In addition, they predict civic journalism is easy to apply to local

problems than national issues.

Through the profound interview, I examined th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ivic journalism, the merits and demerits of civic journalism, the change in introducing civic journalism which happens in way of reporting news, the introducing experience of civic journalism, then quarter in introducing civic journalism which is efficient, obstacles to introduction of civic journalism and civic journalism which is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rises of local journalism.

Most of the respondents anticipate that if the civic journalism is introduced, the way of reporting news will change very much. And they also want to join the change.

Civic journalism is efficient in the local news section and the planning section.

The obstacle is the old ritual in the editorial office.

In order to introduce civic journalism, it i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whole member's conversion of recognition including managers and the editors.

In conclusion, local journalists may solve the present crisis through civic journalism. Also they will become intimate with local community through civic journalism.

제 1 장 서 론

새로운 경쟁매체의 등장과 급격한 성장, 그리고 1997년 IMF에 이어 지난해 불어온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은 국내 미디어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신문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신문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96년 69.3%였던 신문 정기구독률은 2002년 52.9%, 2004년 48.3%, 2006년 40%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8년에는 34.6%를 기록했다.

매체별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신문 산업은 다른 매체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매체별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인터넷 3.46, 지상파 TV 3.38, 라디오 3.20, 케이블TV/위성방송 3.18, 전국종합신문 3.05, 지역일간신문 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뢰도는 지상파TV 3.39, 인터넷 3.35, 라디오 3.19, 케이블TV/위성방송 3.14, 전국종합신문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오수정, 2008).

이 같은 통계수치는 신문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주고 있다. 지역신문의 생존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금융감독원에 매출액이 공시된 14개 지역 일간신문(강원도민 강원일보 경남도민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제주일보)의 매출은 약 2천490억 원으로 2006년 2천660억 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신문 1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약 180억 원 규모로 전국종합일간신문 1개 사의 평균매출액인 1천670억 원의 10.6% 수준이고, 이는 전국 종합신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조선일보 매출의 4.4%에 불과하다. 지역일간지는 2005년 12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06년 이후 당기순손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오수정 외, 2008).

지역신문의 이 같은 위기상황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역과 중앙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언론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방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 지역 언론의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사나 학계의 대응방안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짧고 구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력감축이나 지면축소, 광고확충 등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관점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노력들이 언론사의 경영구조나 재정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의 경우는 이런 경제논리만으로는 그 접근에 한계가 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앙의 언론사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지역 언론사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지역 언론이 위기를 극복, 중앙의 언론사와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역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 즉 언론의 보도행태 및 보도 관행에 관한 실천적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 언론사가 올바른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김민남 외, 1999).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신문이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시장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와 차별화된 기사와 편집으로 지역의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지역사회 안에서 제1차적 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김민남, 1998).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경영위기라는 언론사 내부의 상황을 타개하고 언론의 공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재 및 보도관행을 뛰어넘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와 수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이 중앙지의 모방을 통해 살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독자가 찾는 신문을 만들으로써 지역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저널리즘은 이 같은 지역 신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됐다.

시민저널리즘은 탄생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 ‘언론과 시민의 재 연계’ 등 막연한 표현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용어는 없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이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공공저널리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로젠(Rosen.J)과 언론인 메리트(Merritt.D)는 ‘공동체 저널리즘(Community Journalism)’ 또는 ‘민주주의 고양언론(Democracy-cultivating Journalism) 등으로 부를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핵심이 시민의 공공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란데 착안해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저널리즘의 연구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워싱턴 D.C에 설립된 ‘퓨 시민저널리즘센터’의 초대 소장을 역임한 포우이(Fouhy.E)는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공공저널리즘이나 시민저널리즘은 모두 ‘시민의 공공생활’을 강조하면서 시민참여를 증대시키고, 공동체 문제 해결에 언론이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목표와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시민저널리즘’이라고, ‘공공’의 개념에 무게를 두는 측에서는 ‘공공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안병길, 2003).

시민저널리즘은 1980년대 미국사회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시민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198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0.1%에 불과했다. 이는 1924년 이래 최악의 투표율이었다. 시민이 주체인 민주주의 절차를 시민이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 중상과 모략으로 점철된 선거운동과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한 것이 그 이유였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여 약화는 곧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불신이 깊어진 데는 언론의 책임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와 같은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 과정에서 언론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마식 보도에만 치우치다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 시민저널리즘은 이처럼 미국사회에서의 정치와 시민생활의 괴리, 언론과 수용자들 간의 분리현상의 심화를 막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발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시민저널리즘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저널리즘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는 연구들이다(김민남, 1998; 정태철, 1999; 황용석, 2001).

둘째,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 차원이다. 특히 미국 언론의 시민저널리즘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실천 적용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들이다(김민남, 1998, 2002; 안병길, 2003, 류한호, 2000).

셋째, 선거보도 과정에서 시민적 이슈 개발과 시민중심의 보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유권자인 시민의 관심을 반영한 선거보도의 수행을 위해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해보자는 것들이다(이종수, 1997; 김택환 · 이종수, 1996; 안병길, 2005).

넷째는 시민저널리즘이 온라인 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서도 실천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반현, 2000; 윤태진 · 강내원, 2001; 이효성, 2001; 최영, 2002; 신윤호, 2003; 김병철, 2006).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연구경향의 하나로써 지역 언론 활성화 방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앞서 인용한 연구들처럼 시민저널리즘의 지역 언론 적용 사례는 이미 몇 차례 있어 왔고 논의도 어느 정도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저널리

즘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의 수용 가능성과 수용의 수준,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언론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실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정도와 수용가능성, 도입 시 예상되는 취재관행의 변화양상과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해 보고자 했다. 연구의 초점은 실제 언론 종사자들이 시민저널리즘을 현장 언론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모두 5개 장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본 연구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본 연구의 논문 구성 등을 밝혔다. 또 제2장에서는 시민저널리즘 전반에 관련된 개요와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제3장은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부산경남지역의 일선기자들을 상대로 시민저널리즘 인식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미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했다.

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시민저널리즘의 개요

시민저널리즘은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데다 학계나 언론계의 연구 논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점차 활발하게 논의된 시민저널리즘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비해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계는 물론 언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고 그 실천 영역도 차츰 넓어지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보도의 부정적인 여파가 몰고 온 언론의 자성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미국 언론계의 자기성찰을 자극하면서 실천을 요구했던 것이다(Merritt.D, 1995).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보도 제작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다. 수용자였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특히 송신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독자들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 바로 시민저널리즘이다.

이는 기존의 언론이 보여주었던 취재관행이나 보도태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결국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겠다. 시민저널리즘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공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 구조에 대한 시민의 참여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언론은 시민들에게 공공생활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를 언론보도의 중심적 의제로 삼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성의 실현을 통해 공공

영역을 구축한다는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시민저널리즘 이론가인 로전(Rosen.J,1997)은 저널리스트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을 향상시키고 공공생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널리즘과 시민들을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천지향의 새로운 저널리즘 형태가 곧 시민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본질적 요소, 즉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취재 및 보도 자세, 시각 등의 개혁을 촉구하는 언론운동이자 새로운 저널리즘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리트(Merritt.D)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표현이요, 경험방식인 공공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민저널리즘은 출발한다. 다수의 미국인들 눈에는 이제 정치는 자기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직업정치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언론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Merritt.D, 1995, p.3.).

또 프리드랜드(Friedland.L)는 “시민저널리즘은 기자나 편집인들이 시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상호 결합된 보도를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운동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언론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민저널리즘은 언론보도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하며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보도방식을 일컫는다”고 말했다(Friedland.L, 2001, 신문과 방송, p60.).

미국에서 시민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로전(1996)은 미국 언론이 6가지 위기에 처해있으며 시민저널리즘은 이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태동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전이 지적한 6가지 위기는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직업적, 정신적, 지적 측면이다.

미국 언론은 장기간에 걸친 독자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광고주의 외면으로 저널리즘의 경제적 토대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기술적으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기자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전통적 의미의 저널리즘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제도처럼 언론 역시 궁극적으로 공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기존 언론에 대한 공중의 지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모든 공공제도가 공중의 신뢰를 상실해왔지만 특히 언론의 경우 급격한 신뢰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기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언론계 전반의 고뇌와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자들의 윤리 의식도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어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전은 나아가 시민저널리즘이 미국 언론계에 8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첫째, 언론이 사람들을 독자나 시청자로 보기보다는 민주사회의 ‘시민(Citizens)’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이슈를 판단했지만 시민저널리즘은 이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제(Citizen Agenda)’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보도가 갈등 자체보다는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공공생활·지역문화·정치에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대화와 토론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포럼·대화모임 등을 조직함으로써 미디어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언론의 희망적인 역할을 찾아내 언론계의 냉소주의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언론이 시민의 정체성을 되찾아 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시민저널리즘은 미국 언론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응의 결과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이러한 위기는 비단 미국 언론만의 위기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공영역의 활성화’라는 말을 잘 쓰지만 이 ‘공공영역의 활성화’에서 우리는 일본 언론의 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중앙 중심의 저널리즘 양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논의 역시 쇠퇴하고 있는 공공영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남, 2003).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시민저널리즘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연구나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저널리즘이 국내에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또 학계나 언론현장 종사자들이 시민저널리즘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언론 관행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현가능성이나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저널리즘이 가장 먼저 도입된 미국에서도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활발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는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의 깊이도 개념이나 이론적 배경, 실천당위성, 외국의 실천사례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하고 실천해야 할 당사자인 언론인들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 시민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네 갈래로 나뉘어서 수행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저널리즘을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들이다. 김민남(1998)은 시민저널리즘은 한마디로 언론의 보도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언론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언론이 시민들에게 공공생활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를 언론보도의 중심적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이론,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공중, 공동체이론 등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철(1999)은 시민저널리즘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뉴스가 아니라 독자들이 쌍방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저널리즘의 기원, 실천방법, 사회·철학적인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저널리즘도 완결된 하나의 이론이 아닌 이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저널리즘의 참여논쟁, 주관성 논쟁, 사업성 논쟁, 비정통성 논쟁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황용석(2001)은 시민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인쇄매체로서의 신문 산업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의 주요한 특징으로,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저널리즘과 다르고,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의 장을 제공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공중의 숙의적 토론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 다양한 지역매체 간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언론의 시민저널리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시민저널리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 김민남(1998)은 실제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언론의 수용가능성을 타진했다.

미국언론의 시민저널리즘 실천 성공사례로 샬럿 옵서버(*The Charlotte*

Observer)의 ‘우리 이웃 찾기(Taking Back Our Neighborhoods)’,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Wisconsin State Journal*)의 ‘위스콘신의 우리 시민들(We the People Wisconsin)’, 텔라하스 데모크라트(*Tallahassee Democrat*)의 ‘공중의 의제(The Public Agenda)’,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의 ‘시민의 목소리(The People’s Voice)’,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의 ‘유권자의 목소리(Voice of the Voter)’,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의 ‘프론트 포치 포럼(Front Porch Forum)’ 등 모두 여섯 사례를 들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저자는 시민저널리즘이 우리나라에 적용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사회의 시민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강화, 지역미디어들의 사회적 위상 강화, 지역 미디어들의 자원부족 해결, 언론인들의 인식 변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 등을 꼽고 있다.

김민남(1998)은 또 시민저널리즘의 지역성과 지역 언론의 발전방향이 라는 연구에서 IMF체제 이후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저널리즘이 안고 있는 강한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 언론 위기에 대한 언론학계와 언론계의 대응방안이 그동안 지나치게 경제논리에만 매달렸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짧고 구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시민저널리즘과 관련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 및 보도관행의 실천적 논의가 앞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지역 언론으로써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민남(2002)은 이와 함께 미국식 시민저널리즘을 우리나라 지역 언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미국 언론의 성공사례인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차용해야 할 내용과 지향은 바로 시민저널리즘의 운동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지역 언론은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해결책의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이에 앞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여건 안에서 한국식 시민저널리즘 운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병길(2003)은 시민저널리즘이 공적 기능상실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지방언론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실행 가능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언론의 시민저널리즘 적용 선결 과제로 비용부담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언론사의 의지력 및 인식전환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저널리즘 적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언론분야로 선거보도와 지역이슈 관련 프로젝트 등을 들고 있다.

류한호(2000)는 언론을 공공이익의 위탁관리자로 본다. 그래서 그 공적 기능수행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이 시민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우리나라 지역 언론사들이 시민저널리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진지한 학습과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역설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선거보도 과정에서 시민적 이슈 개발과 시민중심의 보도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다. 이종수(2002)는 국내 언론사들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공동체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담론을 제공하고 선거 이슈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 선거 프로젝트의 의의와 구체적 성과를 검토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을 통한 선거보도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도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시민이슈 발굴과 의제화가 이뤄져 결국 유권자 중심의 보도 및 논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택환과 이종수(1996)는 1996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인식과 정치현실 평가, 정치정보의 습득 및 후보자 결정기준, 언론의 선거보도 평가, 정치참여 및 공론장 확대가능성 등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조사 분석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은

부분에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앞서고 있으나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공중과 언론, 정치 사이의 괴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즉 시민저널리즘의 도입 및 실천을 강조했다.

현직 지역 언론인인 안병길(2005)은 17대 총선에서 시민저널리즘의 선거 보도기법 중 하나인 시민패널기법을 통한 기획보도를 통해 흥미위주의 피상적인 보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선거 판세에만 지나친 관심을 두는 보도 등 정책선거를 실종케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결국 안병길은 시민패널단은 평범한 일반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검증하고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유권자 중심선거보도, 정책중심 선거보도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민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반현(2000)은 미국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치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이 기존의 저널리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온라인 뉴스들은 뉴스 전달의 쌍방향성, 신속성, 심층적 지역뉴스 전달 등의 가능성으로 시민저널리즘을 실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저널리즘이 시민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 이들이 시민저널리즘에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저널리즘이 시민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진과 강내원(2001)은 주요 온라인 신문의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시민저널리즘의 적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문제해결 지향의 과정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온라인 신문들이 정치기구 층위, 전문가 층위, 사회단체 층위, 시민 층위 등 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층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공

공문제에 대한 보도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입장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시민저널리즘적인 보도형식을 띠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신문들은 대안제시 단계에 속하는 기사의 양이 문제제기 단계나 주장의 구체화 단계보다 훨씬 적어, 공공문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신문의 바람직한 시민저널리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이나 집단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효성(2001)은 인터넷은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매체들과 달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또는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저널리즘은 시민이 보도의 주체가 되는 시민저널리즘의 폭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2002)은 온라인 신문에서 시민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온라인 신문 간, 2개의 온라인 신문과 인쇄신문 간 뉴스를 각각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온라인 환경 하에서는 아직까지 시민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인쇄신문과의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저널리즘 관련 개념 및 요소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하며 단계적인 시민저널리즘 실천 작업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신윤호(2003)는 매스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시민저널리즘의 실천가능성을 온라인신문에서 찾아보고자 대표적 온라인신문인 '오마이뉴스'와 매스미디어에 가까운 인터넷신문인 '디지털조선'을 비교하면서 온라인신문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 신문의 보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보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활

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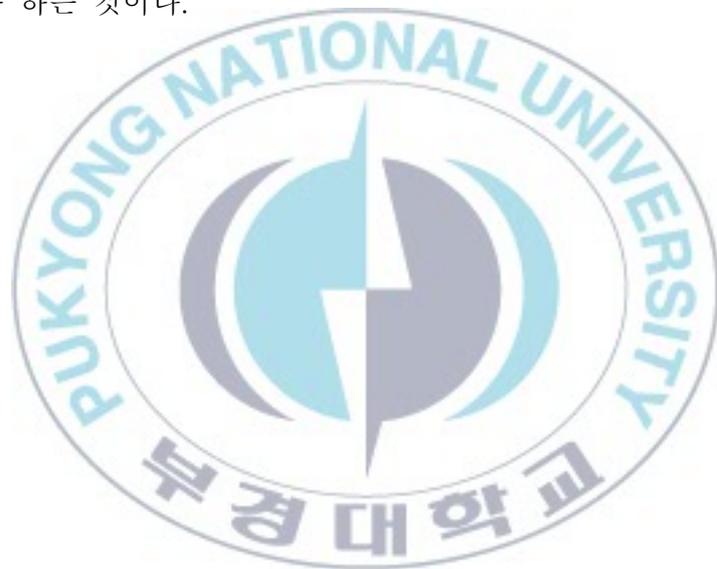
김병철(2006)은 국내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와 토론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저널리즘의 구현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이는 물론 인터넷 신문이 시민기자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일단 국내 인터넷 신문을 시민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기자주도형, 시민공동주도형, 시민주도형 등 세 개 모델로 유형화한 뒤 이들 신문의 시민저널리즘 구현정도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 또는 견해를 기사에 반영하는 것 뿐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이슈중심적 보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시민저널리즘이란 시민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던 기존의 수용자관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뉴스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동체의 주체로 탄생시켜야 한다는 이론 또는 언론 형태를 말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의 보도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저널리즘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저널리즘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어져왔다. 본 논문도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지역 언론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언론에 대한 시민저널리즘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저널리즘의 영역과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시민저널리즘의 연구는 아직 소규모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이다(김은규, 2007).

특히 지금까지 이뤄져온 지역 언론에 대한 시민저널리즘 적용 연구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언론사 편집국장들의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들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의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다(김민남, 2003). 그러나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들은 실제 편집국의 정책결정자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해야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사에서 취재와 보도의 주체는 현재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시민저널리즘의 장단점, 그리고 시민저널리즘의 언론현장 수용가능성, 수용의 수준 등 실천의지와 함께, 도입 이후 예상되는 취재와 보도관행의 변화, 그리고 시민저널리즘이 현재 지역 언론이 맞닥뜨려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기본 관점 속에서 본 논문은 지역 신문 일선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민저널리즘은 공적 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문제의 해결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시민저널리즘이 지역신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유효한지, 또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실천적 수용 의지와 수용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로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정했다.

두 번째로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로 정했다. 여기서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 가능성’,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물었다.

이처럼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한 이유는 지역 언론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시민저널리즘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언론인들 개개인의 지역 언론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나 근무경력, 근무 부서에 따라서 인식정도나 도입가능성, 적용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문제는 편의상 <연구문제 I> <연구문제 II-1> <연구문제 II-2> <연구문제 II-3>으로 부르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지역 언론에서의 수용가능성과 수용정도,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선결과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 언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시민저널리즘 현장 수용 여부의 일차적 관건은 언론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에 달려있고 언론인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심층인터뷰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조사 순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지역 언론의 수용가능성과 수용정도 등을 알아본 뒤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변화양상이나 도입의 장애요소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대상 선정

1. 설문조사

2009년 5월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등록돼있는 우리나라 지역일간신문사는 모두 73개사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 2개, 서울 2개, 대구 5개, 인천 5개, 광주 11개, 대전 5개, 울산 5개, 경기 7개, 강원 2개, 충북 6개, 전북 10개, 전남 1개, 경북 2개, 경남 6개, 제주 4개이다.

이 가운데 조사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부산 경남 지역을 권역으로 하고 있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을 권역으로 하

는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울산광역시를 권역으로 하는 경상일보 등 지역 신문사 네 곳이다.

전국의 신문사 가운데에서 이들 신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신문사가 시민저널리즘을 신문제작 현장에서 실천한 적이 있거나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부산일보는 2003년 당시 한국 언론 시민저널리즘을 취재 현장에 도입한 바 있다. 2004년 9월까지 1년간 '우리 곁의 빈곤'이라는 프로젝트로 기사를 지면에 반영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부산일보는 2004년에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패널단'을 활용해 후보자 중심, 정당 중심의 선거 보도를 유권자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가장 활발히 시민저널리즘을 일상 지면에 반영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로 꼽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 2004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민기자체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기자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이 가운데 매주 3, 4편씩을 신문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현재 시민기자 4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기자제도 함께 운영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중고생들의 기사를 매주 게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도 2008년 9월 홈페이지에 '블로거스 경남'이라는 메타사이트를 개설했다. 지역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블로거의 글을 신문사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종이신문과 블로거가 연대해 직업기자와 블로거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만 1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주 종이신문 한 개 면을 할애해 블로거의 기사 3건을 올리고 있다.

경상일보 역시 청소년기자 클럽을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생기자들이 쓴 글들이 매주 3~4건씩 올려지고 있다.

둘째, 연구자와 공간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언론사들을 선정,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질문의 표현방식이나 문항의 배열이 자칫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회수율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심층인터뷰 역시 공간적으로 가까울수록 대면 접촉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 신문사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취재와 기사작성이 실제로 이뤄지는 편집국 소속 인원으로 그 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이렇게 좁혀진 연구 대상 가운데 나이와 성별, 근무부서, 직위,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표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 설문지 작성

설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4개 부문, 20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했다(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질문 10개 문항 제외). 지역 언론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시민저널리즘’의 도입 가능성,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이다.

이 가운데 지역 언론 상황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지역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물었다.

두 번째,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시민저널리즘 인식여부, 인식경로, 도입 찬성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세 번째, ‘시민저널리즘의 도입가능성’ 부분에서는 지역 언론 전반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 자사의 실천정도,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시민참여의 확대와 지역신문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그 도움의 종류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에

서는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참여의사, 우선 도입 분야, 전국적 광역적 지역적 이슈에의 도입 가능 정도, 신문제작과정상의 도입 수준, 게재 방식 등을 물었다. 각 문항은 폐쇄형과 개방형 질문으로 작성했다. 폐쇄형 질문은 등간척도화 할 수 있는 서열척도로 구성했으며 각 문항은 비대칭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를 사용했다.

2) 설문조사 진행

연구 대상이 된 신문사 4곳에 대한 설문지 배포와 수집은 2009년 3월16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이뤄졌다. 설문지는 4개사를 통틀어 320부를 배포해 이 가운데 110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국제신문의 경우 100부를 배포해 36부를 회수했다.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35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부산일보는 100부를 배포해 37부를 회수해 모두 분석에 사용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상일보는 각각 60부를 배포해 20부와 18부를 회수해 분석에 사용했다. 회수율은 각각 33.3%와 30%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취재를 이유로 회사보다는 각 출입처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전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 신문사들은 취재부서의 경우 아예 회사를 들르지 않고 출입처에서 바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을 받기 위한 접촉이 쉽지 않은데다 바쁜 취재업무로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110명의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세 이하 10명(9.1%)을 비롯, 31~35세 27명(24.5%)이었다. 36~40세가 34명(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41~45세는 24명(21.8%)

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27세(표준편차 5.62)였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연 령	응답자 수	비 율(%)
30세 이하	10	9.1
31~35세	27	24.5
36~40세	34	30.9
41~45세	24	21.8
46세 이상	15	13.6
계	110	100

응답자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90명(81.8%)으로 여성 20명(18.2%)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남자 기자 수가 여자 기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신문사 인적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현재 전국 신문사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1만8천329명 가운데 남자종사자는 1만5천304명으로 83.5%를 차지한 반면 여성 종사자는 3천25명으로 16.5%에 불과했다(한국언론재단 미디어통계시스템).

<표 2> 응답자 성별 분포

성별	응답자 수	비율(%)
남	90	81.8
여	20	18.2
계	110	100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110명의 응답자를 소속사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경남도민일보가 20명(18.2%), 경상일보가 18명

(16.4%)이었다. 다음 국제신문이 35명(31.8%)이었으며 부산일보가 37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표 3> 응답자 소속사별 분포

소속사	응답자 수	비율(%)
경남도민일보	20	18.2
경상일보	18	16.4
국제신문	35	31.8
부산일보	37	33.6
계	110	100

‘근무경력별 응답자’들의 현황은 <표 4>와 같이 5년 이하가 24명(21.8%), 6~10년 21명(19.1%), 11~15년이 41명(37.3%), 16~20년 20명(18.2%), 21년 이상이 4명(3.6%)이었다(근무경력 평균 11.4년 / 표준편차 5.36).

<표 4> 응답자 근무 경력별 현황

근무경력	응답자 수	비율(%)
5년 이하	24	21.8
6~10년	21	19.1
11~15년	41	37.3
16~20년	20	18.2
21년 이상	4	3.6
계	110	100

‘응답자들이 과거 한 번이라도 소속했던 부서’로는 사회부가 82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부 (59명, 17.6%), 편집부 (44명, 13.1%) 순이었다.

또 문화부가 37명(11.0%), 정치부가 32명(9.5%), 스포츠부 25명(7.4%), 생활/과학부 17명(5.1%), 여론/사람부 13명(3.9%), 해양수산부 10명(3.0%), 국제부 7명(2.1%), 교열부 6명(1.8%), 사진부 4명(1.2%) 있다(<표 5>참조).

<표 5> 응답자가 과거 소속했던 부서 현황

과거 소속부서	응답자 수	비율
정치부	32	9.5
경제부	59	17.6
사회부	82	24.4
문화부	37	11.0
스포츠부	25	7.4
생활/과학부	17	5.1
해양수산부	10	3.0
여론/사람부	13	3.9
국제부	7	2.1
사진부	4	1.2
교열부	6	1.8
편집부	44	13.1
계	336	100

이들 응답자의 현재 편집국내 소속 부서는 편집부가 32명(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부가 26명(23.6%)이었다. 또 경제부 14명(12.7%)이었으며 정치부와 생활/과학부가 각각 8명(7.3%), 문화부 7명(6.4%), 사진부와 편집국 소속이 각각 4명(3.6%)순이었다. 국제부가 2명(1.8%), 그리고 스포츠, 해양수산, 여론/사람, 기획탐사부, 조사부는 각각 1명(0.9%)씩이었으며 교열부는 한명도 없었다(<표 6>참조).

편집부와 사회부 인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실제 신문사의 경우 부서 인원이 내근과 외근 부서 가운데 가장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집국 소속은 편집국장이나 부국장, 국장석 부장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응답자 소속부서별 현황

소속부서	응답자 수	비율(%)
정치부	8	7.3
경제부	14	12.7
사회부	26	23.6
문화부	7	6.4
스포츠부	1	0.9
생활/과학부	8	7.3
해양수산부	1	0.9
여론/사람부	1	0.9
국제부	2	1.8
사진부	4	3.6
교열부	0	0
편집부	32	29.1
기획탐사부	1	0.9
편집국	4	3.6
조사부	1	0.9
계	110	100

조사대상자의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별 도시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출생지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전체 86.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신고교에 있어서도 부산 울산 경남이 93.6%를 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신대학에 있어서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대학에 있어서는 서울의 비중이 18.2%를 차지하였다(<표 7>참조).

<표 7> 조사대상자의 출신별 분석

도시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부산 울산 경남	95	86.3	104	94.5	85	77.3
대구 경북	7	6.3	4	3.6	4	3.6
서울 경기	2	1.8	1	0.9	20	18.2
기타 지역	6	5.4	1	0.9	1	0.9
합계	110	100	110	100	110	100

2. 심층인터뷰

지역 언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언론 활성화의 대안으로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인터뷰는 취재현장에서 실제 취재나 편집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했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이 된 신문사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였다. 대상은 이미 설문에 응답했던 기자들 중에서 8명을 선정했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기간은 2009년 6월7일부터 10일까지였다. 심층인터뷰의 순서는 미리 작성한 질문을 인터뷰 대상에게 전달한 뒤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응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에게 실시했던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질문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저널리즘은 무엇이며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질문2> 귀하가 생각하는 시민저널리즘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시민저널리즘이 만약 귀사에 도입된다면 기존의 취재 보도 관

행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질문4> 귀하는 시민저널리즘의 방식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사를 어떤 방식으로 취재했으며 느낀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질문5> 시민저널리즘을 귀사에 도입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6> 시민저널리즘이 귀사에 도입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질문7> 최근 지역 신문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시민저널리즘은 이 같은 위기극복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시민저널리즘이 지역 언론 위기를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8>은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간략한 신상정보이다. 이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소속언론사 및 이름을 기호로 표시했다.

<표 8>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간략한 신상정보

대상(성별)	소속 언론사	언론계경력 및 현 직위
A(남)	가	18년 / 차장
B(여)		10년 / 기자
C(남)		2년 / 기자
D(남)	나	14년 / 기자
E(남)		10년 / 기자
F(여)		7년 / 기자
G(남)	다	9년 / 기자
H(남)	라	5년 / 기자

3. 설문조사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주어진 연구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K for Windows를 사용, 필요한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연구문제 I>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분석에는 단순빈도분석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했다.

또 <연구문제 II-1> <연구문제 II-2> <연구문제 II-3>은 단순빈도분석뿐 아니라 가설검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했다.

우선 <연구문제 II-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문제 II-2>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은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에 대한 인식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정했다.

<연구문제 II-3>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은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설정했다.

<연구문제 II-1> <연구문제 II-2> <연구문제 II-3>번에서 사용한 각각의 독립변인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여부, 중앙기사의 과다게재, 지역이기주의 편승 및 조장, 사실관계 확인부족 등 7개 세부 항목에 대해 질문을 했다. 현재 지역 신문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저널리즘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응답자들이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근무경력도 입사 1년차부터 5년 단위로 범주화했다.

근무부서의 경우 크게 취재부서와 편집부서로 나누었다. 이는 시민저널리즘이 현재의 보도관행을 개선하는데 대안의 하나로 인식된다면 많은 취재원과 접촉하면서 오랜 취재관행에 젖어있는 취재부서 기자보다는 내근을 주로 하는 편집부서 기자들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의 저널리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시민저널리즘 도입에 대해서도 우호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1. 지역 언론 문제점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 1>은 ‘우리나라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였다.

우선, ‘우리나라 지역신문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가운데 43명(39.1%)이 ‘매우 그렇다’라는 답을 하였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자도 63명으로 전체 57.3%를 나타내고 있다. 즉,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중이 전체의 96.4%를 나타내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명(2.7%), ‘아니다’라는 응답은 1명(0.9%)에 불과했으며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표 9>참조).

응답자 전체 평균은 1.65에 표준편차는 0.58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 언론인의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지역신문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지역신문 문제점	매우 그렇다	43	39.1
	그렇다	63	57.3
	보통이다	3	2.7
	아니다	1	.9
	전혀 아니다	0	0
	평균±표준편차	1.65±0.58	

*구분 : 1~5 =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지역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신문의 경영난’의 평균값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고시장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평균 6.02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전체평균이 5.35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값이 낮은 ‘신문사간 과당경쟁’도 4.5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표 10>참조).

결국 응답자들은 지역 언론 자체의 질적 수준 저하, 취재여건, 차별화의 문제 보다는 경영난이나 광고시장의 서울 집중, 중앙지의 관측경쟁 등 경영 또는 언론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

구분	경영난	신문사간 과당 경쟁	광고시장의 서울 집중화 현상	중앙신문의 관측 경쟁	디지털 매체의 확장	차별화 노력 부족	질적 수준 저하	중앙지 선호 경향	열악한 취재 여건
M± SD	6.29± 1.03	4.59± 1.27	6.02± 1.15	5.76± 1.24	5.54± 1.13	5.10± 1.08	4.65± 1.36	5.51± 1.04	4.72± 1.26

*기타 항목은 전체 무응답으로 제외하였음.

*M±SD=평균±표준편차

*구분 : 1~7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 지역신문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60%인 66명을 나타내었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26.4%인 2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은 2.31로 나타났다(<표 11>참조).

전반적으로 보도행태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지역신문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전 항의 질문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수가 훨씬 적었다.

<표 11> 지역신문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보도행태 문제점	매우 그렇다	8	7.3
	그렇다	66	60.0
	보통이다	29	26.4
	아니다	7	6.4
	전혀 아니다	0	0
	평균±표준편차	2.31±0.70	

*구분 : 1~5 =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보도행태 문제점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미흡’의 평균값이 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편승’이 평균 4.38을 나타냈다. 항목 전체평균이 3.83으로 평균수준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값이 낮은 ‘사실관계 확인 부족’은 3.2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표 12>참조).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하는 신문이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언론의 역할에는 미흡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기사의 객관성 등 팩트(fact)의 전달에는 상대적으로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2> 보도행태 문제점의 원인

구분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미흡	중앙기사 과다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편승	사실관계 확인 부족	특정 인물 기업 단체 편협보도	사안의 의도적 과장이나 축소	객관적이지 못한 문장 또는 편집
M±SD	4.66±1.51	3.94±1.19	4.38±1.18	3.21±1.18	3.69±1.35	3.53±1.27	3.45±1.25

* '기타' 항목은 전체 무응답으로 제외하였음.

* M±SD=평균±표준편차

* 구분 : 1~7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발전 1순위 항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30명(27.3%), '지방분권 확립' 27명(24.5%), '정부의 정책적 지원' 2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32명(29.1%), '지역 이슈 발굴과 보도' 26명(23.6%), '지방분권의 확립' 17명(15.5%) 순이었으며 3순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24명(21.8%), '지역 이슈의 발굴과 보도' 20명(18.2%), '지역 경제 활성화' 16명(14.5%) 순으로 꼽았다(<표 13>참조).

<표 1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필요사항	발전1순위		발전2순위		발전3순위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정부의 정책적지원	22	20.0	12	10.9	24	21.8
경영진의 과감한 구조조정	4	3.6	-	-	-	-
지방분권의 확립	27	24.5	17	15.5	4	3.6
지역경제 활성화	30	27.3	32	29.1	16	14.5
신문사 구성원의 의식개혁	5	4.5	6	5.5	10	9.1
수용자의 참여확대	-	-	1	.9	10	9.1
지역 이슈발굴과 보도	12	10.9	26	23.6	20	18.2
사업영역의 확대	5	4.5	9	8.2	12	10.9
독자의식의 전환	5	4.5	7	6.4	14	12.7

* '기타' 항목은 전체 무응답으로 제외하였음.

결국 응답자들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분권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집국 내부적으로는 지역 이슈를 발굴해서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영진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영역의 확대, 독자 의식의 전환, 수용자의 참여확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연구문제Ⅱ-1>은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였다. 여기서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와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물었다.

1)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먼저,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8명(70.9%)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안다’고 대답했다. 18명(16.4%)은 ‘잘 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4명(12.7%)에 불과했다(<표 14>참조).

이처럼 응답자 대다수가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시민저널리즘이 국내에 알려진지 20여년이 경과한데다 조사 대상 언론사가 지역 언론사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저널리즘을 제작 현장에 도입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시민저널리즘을 시도하고 있어 비교적 이에 익숙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시민저널리즘 인식 여부

인식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잘 안다	18	16.4
어느 정도 안다	78	70.9
모른다	14	12.7
계	110	100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103명을 대상으로 시민저널리즘의 인식경로를 물었다. 이 가운데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응답자가 40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명(19.4%), ‘인터넷’ 13명(12.6%) 순이었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표 15>참조).

응답자 대부분이 업무 과정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저널리즘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공 서적이거나 관련 세미나 등 학술적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시민저널리즘 인식 경로

인식 경로	응답자 수	비율(%)
전공서적	9	8.7
인터넷	13	12.6
취재과정	40	38.8
관련 세미나 참석	9	8.7
신문기사	20	19.4
방송	0	0
기타	12	11.7
계	103	100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제작과정에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73명(66.4%), ‘아주 찬성한다’가 18명(16.4%)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2.8%가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셈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4명(3.6%)에 불과했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다(<표 16>참조).

<표 16> 시민저널리즘의 자사 도입 찬반 여부

찬반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아주 찬성한다	18	16.4
찬성한다	73	66.4
모르겠다	15	13.6
반대한다	4	3.6
매우 반대한다	0	0
계	110	100

2) 보도행태 인식도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인식여부와 도입찬반여부는 t-검증을(<표 17>참조), 인식경로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했다(<표 18>참조).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머지 두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서 볼 때 현재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지역 언론인들은 상

대적으로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찬반여부 차이

시민저널리즘 인식도		인식여부	도입찬반여부
보도행태	문제있다	1.76±0.43	2.03±0.60
	문제없다	2.39±0.50	1.97±0.70
t-value		6.87	.428
p-value		.007*	.099

*p<0.05

<표 1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구분		인식경로							전체	χ^2 값 = 7.358 p-value = 0.289
		전공 서적	인터넷	취재 과정	세 미 나	신 문 기 사	방 송	기 타		
보도 행태	문제 있다	4	3	11	27	6	15	8	74	
	문제 없다	3	6	2	13	3	5	4	36	
전체		7	9	13	40	9	20	12	110	

*p<0.05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근무경력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ANOVA(분산분석)와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찬반여부는 ANOVA(분산분석)를(<표 19 참조>), 인식경로는 교차분석을 실시했다(<표 20>참조).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근무경력별 인식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11~15년차의 경우 취재과정에서 시민저널리즘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취재과정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응답자는 없었다. 또 세미나나 전공서적 등을 통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9>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인식/도입찬반여부 차이

시민저널리즘 인식도		인식여부	도입찬반여부
근무경력	5년 이하	1.79	2.00
	6~10년	1.76	2.33
	11~15년	1.88	1.90
	16년 이상	1.83	1.92
F-value		0.27	2.53
p-value		0.84	0.06

* $p < 0.05$

<표 20>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구분		인식경로							전체	X ² 값 = 50.102 p-value = 0.000
		전공 서적	인터 넷	취재 과정	세 미 나	신 문 기 사	방 송	기 타		
근무 경력	5년 이하	6	5	10	0	0	0	3	24	
	6~10년	2	1	8	0	6	0	4	21	
	11~15년	0	5	14	9	9	0	2	39	
	16년 이상	1	2	8	0	5	0	3	19	
전체		9	13	40	9	20	0	12	103	

*p<0.05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근무부서 중 취재부서와 편집부서 간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인식과 도입찬반여부는 t-검증을 (<표 21>참조), 인식경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참조).

분석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도입찬반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편집부가 취재부서에 비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저널리즘이 당위적인 언론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취재 현장에서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취재부서보다는 이상적인 언론의 형태에 대해 오히려 내근을 위주로 하는 편집부가 더욱 더 호의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1> 취재/편집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찬반여부 차이

시민저널리즘 인식도		인식여부	도입찬반여부
취재 및 편집	취재	1.82	2.06
	편집	1.91	2.03
t-value		-.798	.217
p-value		0.49	0.01*

*p<0.05

<표 22> 취재/편집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인식경로 차이

구분		인식경로							전체	X ² 값 = 5.022 p-value = 0.541
		전공 서적	인터 넷	취재 과정	세 미 나	신 문 기 사	방 송	기 타		
취재 및 편집	취재 부서	4	7	9	28	4	11	8	71	
	편집 부서	3	1	4	9	4	8	3	32	
전체		7	8	13	37	8	19	11	103	

3. 시민저널리즘의 도입가능성

<연구문제 II-2>는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은 어떠한가’였다. 여기서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일반적 도입가능성 인식도’와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도’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물었다.

1) 시민저널리즘의 일반적 도입가능성

우리나라 지역 언론사들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8명(52.7%)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낮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35명(31.8%)으로 전체 84.5%가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정도가 그저 그렇거나 낮다고 답했다.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17명(15.5%)이었다(<표 23>참조).

시민저널리즘이 국내에 소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대다수 지역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저널리즘은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기본적인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23> 시민저널리즘의 실천정도

실천 정도	응답자 수	비율(%)
아주 높다	0	0
높다	17	15.5
그저 그렇다	58	52.7
낮다	35	31.8
아주 낮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3.16±0.67	

*구분 : 1~5 = 아주 높다 ~ 아주 낮다

'자신들이 속해있는 신문사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56명(50.9%)이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낮다' 22명(20.0%), '아주 낮다' 2명(1.8%) 순이었다. 하지만 '높다'고 답한 응답자도 27명(24.5%)에 달했으며 '아주 높다'도 3명(2.7%)이 있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전체적인 지역 신문의 시민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비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실천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이 된 언론사가 다른 지역 언론사에 비해 시민저널리즘을 비교적 활발히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다는 안팎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24>참조).

<표 24> 자사의 시민저널리즘 실천 정도

실천 정도	응답자 수	비율(%)
아주 높다	3	2.7
높다	27	24.5
그저 그렇다	56	50.9
낮다	22	20.0
아주 낮다	2	1.8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2.94±0.79	

*구분 : 1~5 = 아주 높다 ~ 아주 낮다

‘시민저널리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86명(78.2%)이 ‘그렇다’, 8명(7.3%)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5명(4.5%)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한 명도 없었다(<표 25>참조).

결국 응답자 대다수는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현장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여론 형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여부

시민참여 확대 여부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8	7.3
그렇다	86	78.2
모르겠다	11	10.0
그렇지 않다	5	4.5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2.12±0.59	

*구분 : 1~5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4명(67.3%)이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도 18명(15.4%)으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6명(5.5%), ‘매우 그렇지 않다’는 2명(1.8%)에 그쳤다(<표 26>참조).

결국 대다수 응답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신문의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발전에 기여할지 여부

기여 여부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18	16.4
그렇다	74	67.3
모르겠다	10	9.1
그렇지 않다	6	5.5
매우 그렇지 않다	2	1.8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2.09±0.80	

*구분 : 1~5 =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 발전에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의 경우, 인식하고 있는 기여도에 따라 1~3순위로 나누어 물었다.

응답자들이 기여1순위로 꼽은 항목은 다양하고 풍부한 기사소재 발굴로 모두 48명(43.6%)이 응답했다. 뒤를 이어 지역사회 공론장의 활성화 14명(12.7%), 지역중심의 이슈발굴과 기사보도 11명(10%) 순이었다. 기여 2순위로는 독자의 참여의식 제고가 28명(25.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새로운 독자 확보와 지역사회 공론장 활성화가 똑같이 17명(15.5%)씩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기여 3순위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공론장의 활성화가 28명(2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7>참조).

<표 27> 시민저널리즘이 지역신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문

구분	기여1순위		기여2순위		기여3순위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다양하고 풍부한 기사 소재 발굴	48	43.6	11	10.0	10	9.1
새로운 독자의 확보	8	7.3	17	15.5	9	8.2
신문사 경영 개선	-	-	-	-	2	1.8
취재인력난 해소	-	-	6	5.5	7	6.4
기사내용의 공신력 확보	2	1.8	3	2.7	2	1.8
독자의 참여의식 제고	9	8.2	28	25.5	22	20.0
지역사회 공론장 활성화	14	12.7	17	15.5	28	25.5
지역중심 이슈발굴, 보도	11	10.0	10	9.1	11	10.0
기타	-	-	-	-	1	0.9

2)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 가능성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가능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시민저널리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 시민 참여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8>참조).

다시 말해 현재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2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전반적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	본인소속사의 실천정도	여론형성과정 에 시민참여확 대	지역신문발 전 기여 여부
보도행 태	문제 있다	3.23	2.92	2.08	2.11
	문제 없다	3.03	2.97	2.19	2.06
t-value		1.412	-.306	-.854	.325
p-value		0.81	0.66	0.04*	0.56

* $p < 0.05$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근무경력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가능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ANOVA(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시민저널리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

에 시민 참여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의성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5년 이하, 11~15년, 16년 이상이 a군, 6~10년이 b군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9>참조).

실험결과 입사 연차가 낮을수록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입사 5년차 이하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차가 높을수록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6~10년차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MF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3년 사이 입사해 구조조정의 경험을 가진 이들 응답자들이 시민저널리즘의 확대로 시민들이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들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표 29>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

도입가능성		전반적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	본인소속사 의 실천정도	여론형성과정 에시민참여확 대	지역신문 발전 기여 여부
근무 경력	5년 이하	3.08	3.00	1.92 ^a	1.96
	6-10년	3.38	3.00	2.43 ^b	2.33
	11-15년	3.15	2.76	2.02 ^a	2.05
	16년 이상	3.08	3.13	2.21 ^a	2.08
F-value		0.972	1.264	3.703	0.908
p-value		0.40	0.29	0.01*	0.44

*p<0.05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근무부서 중 취재부서와 편집부서간 시민 저널리즘 도입가능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test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0>참조).

<표 30> 취재/편집부서 간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 차이분석

도입가능성		전반적 시민저널리 즘 실천정도	본인소속사 의 실천정도	여론형성과정 에 시민참여확대 가능성	지역신문 발전 에 기여여부
취재 및 편집	취재	3.20	2.80	2.14	2.17
	편집	3.09	3.13	2.16	2.03
t-value		.782	-1.941	-.119	.756
p-value		.051	.787	.698	.973

* $p < 0.05$

4.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

<연구문제 II-3>는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였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와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도’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물었다.

1) 시민 저널리즘 적용 범위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시민저널리즘을 제작현장에 좀 더 도

입한다면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7명(70.0%)은 ‘그렇다’, 14명(12.7%)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명(1.8%)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한명도 없었다(<표 31>참조).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민저널리즘의 자사 도입 시 참여 의사 여부

참여 의사 여부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14	12.7
그렇다	77	70.0
보통이다	17	15.5
그렇지 않다	2	1.8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2.06±0.59	

*구분 : 1~5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의 분석결과 도입1순위 항목에서는 사회분야가 52명(4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28명(25.5%), 여론/사람 분야가 18명(16.4%)으로 뒤를 이었다.

2순위로는 생활분야가 24명(21.3%)으로 가장 높았으며, 3순위 항목에서도 2순위와 마찬가지로 생활분야가 34명(30.9%)으로 가장 높았다(<표 32>참조).

즉 응답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할 경우 정치나 경제 분야보다는 사회, 생활, 여론/사람 등 독자들의 일상생활 또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도입이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우선 도입 분야

구분	도입분야 1순위		도입분야 2순위		도입분야 3순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정치	1	.9	6	5.5	7	6.4
경제	-	-	18	16.4	10	9.1
사회	52	47.3	23	20.9	13	11.8
문화	11	10.0	23	20.9	19	17.3
스포츠	-	-	4	3.6	6	5.5
생활	28	25.5	24	21.8	34	30.9
과학	-	-	-	-	-	-
해양수산	-	-	-	-	-	-
여론/사람	18	16.4	12	10.9	21	19.1

‘시민저널리즘이 현장에 도입된다면 전국적인 이슈, 광역 이슈, 지역적인 이슈의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전국적인 이슈의 경우, ‘일부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60명(54.5%),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15명(13.6%)이었다. 결국 ‘가능하다’는 응답이 68.1%였다. 응답자 전체 평균은 2.29, 표준편차는 0.84였다 (<표 33>참조).

이에 비해 광역이슈의 경우, ‘일부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62명(56.4%),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34명(30.9%)으로 모두 87.3%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전체평균은 1.85, 표준편차는 0.71이었다 (<표 34>참조).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이슈의 경우, 응답자들은 ‘일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54명(49.1%),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50명(45.5%)으로 94.6%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체로 불가능하다’거나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

은 한명도 없었다. 응답자 전체 평균은 1.60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59였다.(<표 35>참조).

따라서 응답자들은 사안의 폭이 넓거나 수용자들과 심리적 거리가 있는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지역 밀착적이고 개개인의 접근이 용이한 이슈에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도입 가능 정도	응답자 수	비율(%)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15	13.6
일부만 가능하다	60	54.5
그저 그렇다	23	20.9
대체로 불가능하다	12	10.9
전혀 불가능하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2.29±0.84	

*구분 : 1~5 =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전혀 불가능하다

<표 34> 광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도입 가능 정도	응답자 수	비율(%)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34	30.9
일부만 가능하다	62	56.4
그저 그렇다	11	10.0
대체로 불가능하다	3	2.7
전혀 불가능하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1.85±0.71	

*구분 : 1~5 =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전혀 불가능하다

<표 35> 지역적인 이슈의 도입 가능 정도

도입 가능 정도	응답자 수	비율(%)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50	45.5
일부만 가능하다	54	49.1
그저그렇다	6	5.5
대체로 불가능하다	0	0
전혀 불가능하다	0	0
계	110	100
평균±표준편차	1.60±0.59	

*구분 : 1~5 =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전혀 불가능하다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신문제작과정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이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과 기자가 함께 취재하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수준까지 가능하다’가 30.9%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이슈 항목에서는 ‘시민이 취재 작성한 기사를 검토 후 선별, 수정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수준이 가능하다’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6>참조).

응답자들은 ‘이슈별 도입정도’와 마찬가지로 제작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이슈 보다는 지역적인 이슈의 제작과정에 시민들이 보다 더 깊이 있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6>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신문제작과정’상 도입수준

구분	전국이슈		광역이슈		지역이슈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응답자 수	비율 (%)
현실적불가능	47	42.7	6	5.5	1	.9
제보수준	36	32.7	32	29.1	9	8.2
선별 수정후 게재수준	14	12.7	26	23.6	41	37.3
동행취재 기자편집	8	7.3	34	30.9	26	23.6
동행취재 동시편집	5	4.5	12	10.9	33	30.0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해 제작한 기사의 게재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101명(91.8%)이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 모두에 게재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종이신문만 게재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한명도 없었으며 ‘온라인 신문만 게재해야한다’는 답변도 9명(8.2%)에 불과했다(<표 37>참조).

즉 응답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그 결과물을 종이신문과 온라인 신문 모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시민저널리즘 적용 기사의 게재 방식

게재 방식	응답자 수	비율(%)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	101	91.8
종이신문만	0	0
온라인신문만	9	8.2
기타	0	0
계	110	100

2)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우선 ‘지역 언론인들의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중 ‘도입 시 참여여부’, ‘전국이슈 도입정도’, ‘광역이슈 도입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지역이슈 도입정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38>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또 ‘전국적인 이슈에서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에 비해 도입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광역이슈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38> 보도행태 인식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시민저널리즘 참여 여부	전국이슈 도입정도	광역이슈 도입정도	지역이슈 도입정도
보도행태	문제있다	2.04	2.19	1.88	1.64
	문제없다	2.11	2.50	1.78	1.53
t-value		-.582	-1.84	.699	.878
p-value		.021*	.001*	.006*	.603

* $p < 0.05$

3) 근무경력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근무경력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ANOVA(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중 지역이슈 도입 정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의성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5년 이하가 a군, 나머지 항목들이 b군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9>참조).

지역이슈에 대한 도입정도의 경우 입사 연차가 낮은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정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근무경력별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도입참여여부	전국이슈도입 정도	광역이슈도입 정도	지역이슈도입 정도
근무경력별	5년이하	2.08	2.33	1.71	1.17 ^a
	6-10년	2.24	2.62	2.05	1.71 ^b
	11-15년	1.98	2.24	1.80	1.71 ^b
	16년이상	2.04	2.04	1.88	1.75 ^b
F-value		0.91	1.88	0.93	6.27
p-value		0.43	0.13	0.42	0.00*

* $p < 0.05$

4) 근무부서에 따른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인식 차이

‘지역 언론인들의 취재 및 편집부서 간 시민 저널리즘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중 전국이슈 도입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0>참조).

전국이슈의 경우 편집부서가 취재부서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표 40> 취재/편집부서 간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차이

시민저널리즘 적용범위		도입참여여부	전국이슈도입정도	광역이슈도입정도	지역이슈도입정도
취재 및 편집	취재	2.1408	2.4225	1.9577	1.6338
	편집	2.0313	2.0313	1.6563	1.5625
t-value		.927	2.265	2.093	.549
p-value		.326	.023*	.274	.601

* $p < 0.05$

제 2 절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1. 시민저널리즘 인식과 도입 의향

먼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도입의향을 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을 언론 취재 현장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다 공정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받아들여진다. 현재 지역언

론뿐 아니라 언론, 특히 신문산업 전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볼 때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뿐 아니라 일방적인 언론 소통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참여자 B>).

시민저널리즘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의 저널리즘이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신문사들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취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독자들이 외면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시민저널리즘은 이 같은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이 언론사의 보도활동에 적극 참여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도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연구 참여자 E>).

직업적인 기자들에 의해 이뤄져오던 취재와 보도 등 언론행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공공저널리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언론인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태로 알고 있다. 특히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언론은 문제제기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연히 시민저널리즘 도입에는 찬성한다 (<연구 참여자 G>).

인터뷰에 응한 부산경남지역 기자들은 대부분 시민저널리즘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그동안 문제제기에 그쳤던 언론의 역할을 시민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해결책까지 모색하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사의 경영, 심각한 인력난, 일방적인 소통의 불균형, 타성에 젖은 취재 관행 등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도입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다. 이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시

민저널리즘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시민저널리즘이란 수용자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이며 언론이 단순한 뉴스의 전달자, 또는 이슈에 대한 관찰자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입에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언론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사만 보도하거나, 또는 언론이 독자들을 계몽하려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F>).

하지만 언론이 자의적으로 의제를 생산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주입하려는 과거 계몽주의 저널리즘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 언론의 특성상 독자의 요구에 영합하는 기사로만 지면을 메울 수도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경계한다는 <연구 참여자 F>의 견해도 있었다.

2. 시민저널리즘의 장단점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이 생각하는 시민저널리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은 기자의 입장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빌려 과거의 틀로 독자들을 계몽하려는 계몽주의 저널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을 것 같다 (<연구 참여자 B>).

장점은 현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지면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 신문사 편집국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전통적인 언론사가 주도권을 잡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라 대안언론이나 1인 미디어

와는 달리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다 (<연구 참여자 C>).

장점은 언론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칫 시민저널리즘 도입 의도가 희석될 경우 언론 고유의 객관성이나 불편부당성을 잃고 그저 독자에게 아부하는 언론이 될 수도 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 F>).

시민저널리즘의 장점이라 한다면 시민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보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아부해 언론 본래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 참여자 H>).

응답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의 장점으로 대부분 시민참여를 통한 독자 중심의 기사 제공을 꼽았다. <연구 참여자 C>는 신문사 내부적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30% 이상의 인력감축이 이뤄진 지역 신문사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적은 기자 인력으로도 전문성있는 보도를 펴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연구 참여자 F, H>는 그동안 단순한 뉴스 소비자로 여겨져 왔던 시민들을 뉴스 생산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원하는 이슈를 발굴해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단점도 많았는데 <연구 참여자 B>는 우선 시민저널리즘이 자칫 잘못 이해될 경우 언론이 갖고 있는 틀대로 독자들을 계도하려는 계몽주의 저널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실 시민저널리즘에 있어서 의제설정의 주체가 시민이 아닌 언론사가 될 경우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F, H>는 단순히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할 경우 언론 고유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상실한 채 독자의 요구에 영합하고 아부하는 언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지역 언론인들이 현재 지역 언론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를 타개할 방안의 하나로 시민저널리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취재보도관행의 변화양상

부산경남 지역 신문기자들이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예상하는 취재보도관행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취재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사 작성과 보도 관행이 깨져 버리게 될 것이다. 현장의 기자들로서는 피곤하고 귀찮은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이 늘상 지적받아오던 대안 없는 문제제기의 수준을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C>).

일단 기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취재하고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기사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길어지지 않을까 싶다. 속보성 뉴스가 많이 주는 대신 기획성이나 심층취재물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직업기자들의 자리를 시민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아 조직 내에서의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C>는 취재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보도관행을 깨고

문제제기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 참여자 E>는 속보성 보다는 기획성이나 심층 취재물이 늘어나 깊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사들이 생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시민들이 취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기자들의 위치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솔직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대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취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기획기사의 경우는 거의 소재를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후의 부분, 즉 기사의 방향을 정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시민들의 개입이 거의 없다시피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연구 참여자 D>).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기자들 취재의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처음 시도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소 배타적이던 신문사 편집국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지면도 보다 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배어나고 독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사들로 채워질 것 같다 (<연구 참여자 H>).

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 D>는 이미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받아서 취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시민저널리즘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구 참여자 H>도 이 같은 시민들의 참여가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도 취재나 제작에 시민들이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대안모색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보도관행에 크든 적든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동의했다.

4. 시민저널리즘 보도 경험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이 직접 취재과정에서 경험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정치부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선거 때마다 선거감시패널단, 매니페스토 캠페인 등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관련 학계 교수 등과 함께 취재와 정책 선거를 유도한 경험이 있다. 이것도 시민저널리즘의 형태라면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4년 총선이 기억에 남는데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느낀 점은 역시 사전 준비가 치밀해야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정책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였으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다. 오히려 언론사 독자적인 취재보도만 못한 영성한 기획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니페스토 등을 통해 선거보도가 그런대로 이전보다는 시민의 참여아래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다 (<연구 참여자 A>).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시민패널을 활용해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했을 때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국내에 시민저널리즘 보도기법이 별로 소개되지 않았을 때라 애도 많이 먹었고 영성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시민패널 보도기법은 후보자 중심, 정당 중심의 선거 보도를 유권자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이끄는 데 한몫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D>).

10년차 이상 기자들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저널리즘의 형식을 빌려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치부와 사회부에서의 경험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 A, D>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민감시 패널단, 매니페스토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는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한 보도 기법이 널리 이용되지 않을 때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험자들은 당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어 시민저널리즘의 현장 도입이 가능하고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솔직히 본인을 비롯해 본인의 회사도 그렇게 시도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막상 시도하려 한다면 나름대로 회사나 기자들이나 시민저널리즘 도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연구 참여자 H>).

반면 연차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사 재직 기자는 아직 시민저널리즘을 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 참여자 H>는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하려면 해당 회사나 기자들이 이를 소화해낼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5. 시민저널리즘 도입 분야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도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사회부에서의 도입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 속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지역의 주거나 환경문제, 또는 범죄, 그리

고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면에서나 시민저널리즘의 취지면에서나 옳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 B>).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제를 찾아내고 문제점을 보도하고 해결책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라면 사회부가 제격일 것 같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사회부 기자들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고 취재의 기본을 익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기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 사회부에 많이 포진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나올 것이다 (<연구 참여자 H>).

도입이 가능한 부서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사회부가 첫 번째로 꼽혔다.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A>는 지역의 주거문제,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등의 주제는 사회부가 다루는 이슈와 잘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와도 일치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의 분석결과 도입1순위 항목에서 사회분야가 52명(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연구 참여자 H>는 대부분 신문사들에서 사회부 기자 수가 가장 많아 취재 여력이 될 뿐 아니라 기자들의 연령층도 젊어 시민저널리즘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특집부(탐사보도부)가 시민저널리즘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의제 설정하고 함께 취재해나가는 방식을 택한다면 사회부가 가장 맞을 것이다. 기획특집이나 탐사보도 같은 부서는 생활과 관련이 있으나 긴 시간 또는 깊이 있는 취재를 요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노인문제나 청년실업문제 등 하루 이틀에 다루기 힘들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면 얼마든지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연구 참여자 C>).

기획특집이나 탐사보도팀같은 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단순 전달 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호흡을 가지고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적합할 것 같다. 비록 지역 신문의 탐사보도가 중앙지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민저널리즘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의 취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 D>).

기획특집이나 탐사보도 부서도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이 두 부서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심층취재와 보도가 가능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속보성 보다는 호흡이 긴 취재가 어울린다는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이 경우 지역 신문은 중앙지에 비해 탐사보도의 여건이 인력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을 잘 활용하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정치부가 가장 필요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의 취재에서 보여준 경마식 보도, 겉핥기식 검증을 뛰어넘어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관건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 보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만 주의한다면 선거에서의 시민저널리즘 도입은 정책선거 유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A>).

이밖에 정치부의 경우 선거 보도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여지가 많았고 실제로 시민저널리즘을 활용한 보도가 시도됐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연구 참여자 A>는 직접 선거 과정에서 시민저널리즘의 형식을 빌려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어 치밀한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 시민저널리즘 도입의 장애요소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 도입의 장애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타성에 젖은 신문사 편집국내의 분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장 기자가 특정 이슈의 취재를 위해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하려해도 조직 내 상층부에서 이를 허용치 않는다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은 요원하다. 특히 시민저널리즘은 1인 미디어나 시민참여에 익숙한 젊은 기자들이 더 지지하는 방식인지 모른다. 하지만 배타적인 신문사 편집국의 분위기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을 편집국내 상층부의 이해가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도입해야한다는 대의명분만 지지하면서 실제로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꺼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B>).

아마 젊은 기자들은 인터넷언론이나 대안언론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보수적인 신문사 편집국내의 체제나 오랫동안 굳어져온 취재 관행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나이든 선배 기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라는 대의명분에는 찬성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식의 취재가 비효율적이고 신문사의 이미지 제고나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 참여자 C>).

시민저널리즘 도입의 장애요소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은 대부

분 내부적 장애요인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 참여자 B)는 시민저널리즘은 어차피 언론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간다는 점에서 타성에 젖은 신문사 편집국내의 분위기가 과연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명분으로만 찬성하고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C)는 특히 조직의 상층부나 오랫동안 취재관행에 길들여져 온 연차가 많은 기자들이 도입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독자에 아부하는 신문이 되려 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시민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광고의 유치, 판매부수 증가 등 경영상의 손익을 염두에 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하려는 언론사의 의도가 단순히 경영상의 이득만을 취하려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자의 요구에 영합하는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이 활용돼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의 성패는 편집국 내부와 조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상층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7. 대안으로서의 시민저널리즘

부산경남지역 신문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서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 신문사는 오랜 동안 경영이나 편집에 있어서 정체를 보여 왔다. 갈수록 시장이 좁아 지다 보니 경영도 거기에 따라 소극적으로 변한 탓도 있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나 편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랜 기간 타성에 젖은 경영과 취재를 반복하다 IMF 외환위기 때 힘없이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같은 관성을 깨고 보다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 성과가 신문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경영의 호전으로 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지역신문의 위기는 지역신문이면서 중앙지만 따라가다가 독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으로서의 차별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중앙지와 차별화된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그 해결책까지 모색할 수 있다면 중앙지와는 차별화된 지역신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D>).

어떻게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저널리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신문사가 난국을 타개하고 지역언론이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문사 경영진에서 이를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자의 이익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상업주의를 만들어낼 우려도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 F>).

응답자들은 현재 지역신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특히 신문은 그동안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꾸준히 대중과 소

통하는 길을 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취약성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당연히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제공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독자들이 신문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저널리즘은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구해내는 결정적 역할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 지나치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독자들에게 영합하거나 아부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제시됐던 연구문제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I>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경우, 우리나라 지역 언론인 가운데 96.4%가 현재 지역 언론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역신문의 경영난과 광고시장의 서울집중화 현상, 중앙신문의 판촉경쟁, 디지털매체의 확장 등을 꼽았다.

또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전체의 67.3%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 원인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미흡,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편승, 중앙기사 과다 등을 들었다.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27.3%), 지방분권 확립(24.5%), 정부의 정책적 지원(20%) 등을 꼽았다.

‘<연구문제 II-1>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지역 언론인들은 대다수(8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82.8%가 시민저널리즘을 신문제작과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지역 언론인들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 언론인들은 상대적으로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재부서와 편집부서 간 시민저널리즘의 인식도 차이와 관련해 편집부서가 취재부서에 비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취재부서의 기자들 보다는 편집부서의 기자들이 보다 이상적인 언론형태에 보다 호의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II-2>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 도입가능성은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지역 언론사들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가 낮거나(31.8%) 그저 그렇다(52.7%)고 대답해 아직 시민저널리즘이 실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사의 시민저널리즘 실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해 낮다(20%)거나 아주 낮다(1.8%), 그저 그렇다(50.9%)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항의 지역 언론사들의 실천정도를 묻는 질문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사의 실천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언론인들은 85.5%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83.7%는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지역 언론인들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다양하고 풍부한 기사소재 발굴이나 지역사회 공론장의 활성화, 지역중심의 이슈발굴과 기사 보도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언론인들은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형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연구문제 II-1>에서 보도행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인식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현재 보도행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은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또 지역 언론인들은 입사연차가 낮을수록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형성 과정에 시민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6~10년차 기자들의 경우 예외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어본 이들 세대들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으로 고용의 불안을 겪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위기감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Ⅱ-3>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우선 지역 언론인들은 자사의 신문제작과정에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할 경우 82.7%가 이에 응하겠다고 밝혀 전반적으로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지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한다면 우선 도입해야 할 분야로 사회(47.3%), 생활(25.5%), 여론/사람(16.4%) 분야를 꼽았다.

다음으로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역 언론인들은 이슈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인 이슈의 경우에는 일부만 가능하거나(54.5%) 그저 그렇다(20.9%)는 답변이 많았으나 광역적인 이슈는 일부만 가능하다(56.4%)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30.9%) 순이었으며 지역적인 이슈의 경우는 일부만 가능하다(49.1%)와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45.5%)는 답이 비슷해 이슈의 권역이 작을수록 시민저널리즘을 보다 깊이 있게 적용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신문제작과정상 도입수준을 살펴보아도, 전국적인 이슈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42.7%)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반면, 광역이슈와 지역이슈로 갈수록 도입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해 제작한 기사의 게재 방식에 대해서도 종이신문과 온라인 신문에 모두 게재하는 것이 좋다(91.8%)는 답변이 압도적이어서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한 기사의 적극적 지면반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또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할 경우 지역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또 이슈별 도입 정도를 묻는 질문의 경우 전국이슈와 광역이슈에서 서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 이슈에 대한 도입 정도와 관련해 입사 연차가 낮은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정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이슈에 대한 도입 정도와 관련해 편집부서가 취재부서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심층인터뷰 결과, 우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시민저널리즘 도입 시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이 뉴스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뉴스생산에 적극 참여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언론사의 시각대로 시민들을 계도하려는 계몽주의 저널리즘화된다거나 독자의 요구에만 영합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할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또 시민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지금까지의 취재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해오던 취재보도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와 의제설정과 대안모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가장 적절한 부서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회부를 꼽았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부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다음으로 기획특집, 탐사보도부와 정치부도 선정됐는데 선거보도와 호흡이 긴 기획취재에 시민저널리즘이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인터뷰 대상자들은 오랜 취재관행에 익숙해져있는 신문사 편집국 내부의 분위기가 시민저널리즘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실질적인 참여의 시점에서는 취재 패턴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현재 지역신문이 심각한 위기에 봉

착해있으며 시민저널리즘이 이를 타개하는 절대적 구원병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제 2 절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 신문기자들은 현재 지역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시민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취재보도 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여론 형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의 권역이 작을수록 시민저널리즘 적용이 긍정적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이 취재보도 과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굳어져온 신문사 편집국 내의 보도관행 탈피나 조직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사됐다.

현재 지역신문이 당면해있는 위기는 신문사 안팎으로 복잡하고 구조적인 요인이 얽혀있어 어느 특정한 방법이나 접근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신문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보다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신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시민저널리즘은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제작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언론의 역할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슈를 생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이 이 같은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이는 바로 시민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시민저널리즘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자로서의 언론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 확대, 시민과 언론 간 공론장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신문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시민저널리즘의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지역언론이 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역 언론이 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지역 신문기자들은 시민저널리즘 실천의 방향 설정이 잘못될 경우 언론사의 시각대로 시민들을 계도하려는 과거 계몽주의 저널리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독자의 요구에 지나치게 충실할 경우 언론 본연의 사명인 감시와 비판자의 역할을 망각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취재원에게 의존해오던 취재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편집국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저널리즘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참여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민저널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재정부담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동자로서의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시민저널리즘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잃었던 독자를 회복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권역이 부산 경남지역에 그친데다 4개의 신문사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해 전체 지역 신문기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 또 근무환경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응답자가 110명에 그쳐 통계상 유의한 차이의 존재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시민저널리즘의 성공여부는 언론인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태도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들의 수용의지와 태도를 밝히는데 그쳤다. 후속연구에서는 시민저널리즘을 추동하는 다른 한 축인 시민들의 실천 의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민남(1998).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2003).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신승훈(2002). 공공저널리즘 실천사례를 통해본 한국지역언론에의 적합성 연구. 《사회과학논집》.제20집.
- 김민남·안영민(1999). 시민저널리즘의 지역성과 지역언론 발전방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제24집. pp197~217.
- 김병철(2006). 《시민사회와 시민저널리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석훈(1998). 한미양국의 지역신문 비교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영기(1999). 지역언론의 위기와 공공저널리즘. 《현대사회과학연구》. 10권. pp132~162.
- 김영호(2008).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의미와 성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김은규(2007). 시민저널리즘과 지역 언론. 지역신문기자과 지역 언론 세미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김택환·이종수(1996). 《선거와 시민저널리즘》. 한국언론연구원.
- 반현(2000).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저널리즘-다른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5호. pp59~74.
- 신윤호(2003).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길(2003). 《시민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병길(2005). 《행동하는 언론 공공저널리즘》. 도서출판 전망.
- 오수정(2008).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재단. 7월호, pp146~149.

- 오수정·이창훈·김갑순(2008). 《2008 언론 경영성과 분석》.한국언론재단.
- 윤태진·강내원(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1호. pp306~343.
- 이종수(1997). 대통령선거와 텔레비전 보도. 《저널리즘비평》.Vol.22 No.1
- 이종수(2002). 선거이슈와 이슈보도-시민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제84호. pp20~29
- 이효성(2001). 온라인 저널리즘 현실과 전망. 《신문과 방송》. 6월호. pp106~110
- 정태철(1999). 《미국신문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2002). 온라인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6호. pp33~63.
- 황용석(2001). 시민저널리즘. 《관훈저널》. 통권 제80호. pp115~124.
- 류한호(2000). 지역언론과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 목혜 김민남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언론문화의 변동과 새 지평》.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경진(2004).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5호. pp164~198.

<기타문헌>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

http://mediasis.kpf.or.kr/mediaStatistics/sub_02_02.asp?strTypeCode1=1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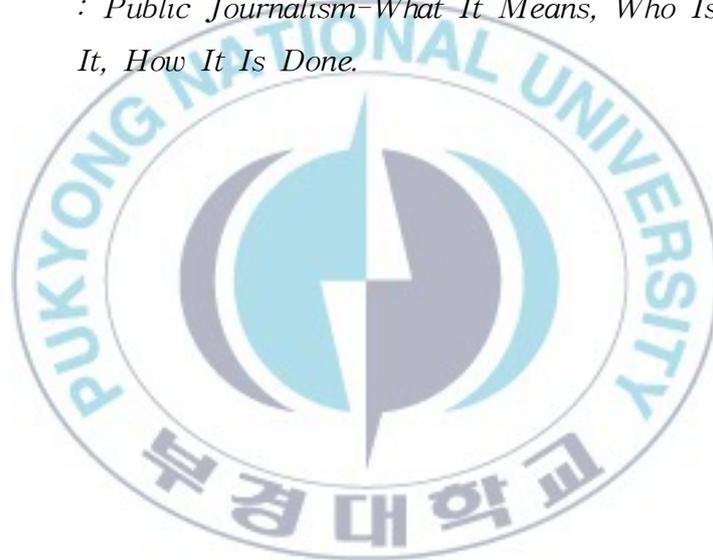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현황

http://www.cln.or.kr/sub4_1.php

대담:풀뿌리 언론부터 인터넷도 활용해야-공공저널리즘 연구자 프리드랜드 위스콘신대 교수. 《신문과 방송》,2001년 7월호, pp60~64.

<외국문헌>

- Merritt,D.(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 Why Telling The News Is Not Enough*,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osen,J. (1996) *'Getting the Connections Right: Public Journalism and the Troubles in the Press'*. Century Foundation Press.
- Rosen,J. (1997) 'Behind Public Journalism', in *AMPE Leadership Report : Public Journalism-What It Means, Who Is Practising It, How It Is Done.*



부산·경남지역 언론인의 ‘시민 저널리즘’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이상기 교수님의 지도 아래, 부산·경남지역 언론인들의 ‘시민 저널리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고견을 연구에 반영코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일률적으로 통계처리에 사용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무썽록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설문지에 빠짐없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지도교수 :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상 기

연구자 :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이 원 구

※ ‘시민 저널리즘’이란 시민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던 기존의 수용자관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뉴스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동체의 주체로 탄생시켜야 한다는 이론 또는 언론 형태를 말합니다.

※ 작성하신 질문지를 보내주실 때에는 이메일 : man3325@hanmail.net 또는 FAX (051)320-1580번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조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 (휴대폰 : 016-549-263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 상황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우리나라 지역 신문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질문 2로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질문 3으로
 ⑤ 전혀 아니다

2. 귀하께서 우리나라 지역 신문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지역신문의 경영난							
② 신문사간 과당 경쟁							
③ 광고시장의 서울 집중화 현상							
④ 중앙 신문들의 판촉 경쟁							
⑤ 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매체의 확장							
⑥ 지역신문사의 차별화 노력 부족							
⑦ 지역 신문의 질적 수준 저하							
⑧ 독자들의 중앙지 선호경향							
⑨ 열악한 취재여건							
⑩ 기타()							

3. 귀하는 우리나라 지역 신문의 보도 행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질문 4로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질문 5로
 ⑤ 전혀 아니다

4. 귀하께서 우리나라 지역신문의 보도행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란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미흡							
② 중앙기사 과다							
③ 지역이기주의 편승 및 조장							
④ 사실관계 확인 부족							
⑤ 특정인물이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한 편협한 보도							
⑥ 사안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보도행태							
⑦ 객관적이지 못한 기사문장이나 편집							
⑧ 기타(_____)							

5.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정부의 정책적 지원
- ② 경영진의 과감한 구조조정
- ③ 지방분권의 확립
- ④ 지역 경제 활성화
- ⑤ 신문사 구성원의 의식개혁
- ⑥ 수용자의 참여 확대
- ⑦ 지역 이슈의 발굴과 지역 중심의 기사 보도
- ⑧ 사업 영역의 확대
- ⑨ 독자의식의 전환
- ⑩ 기타 _____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시오)

◆ 지역 언론인들의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6. 귀하는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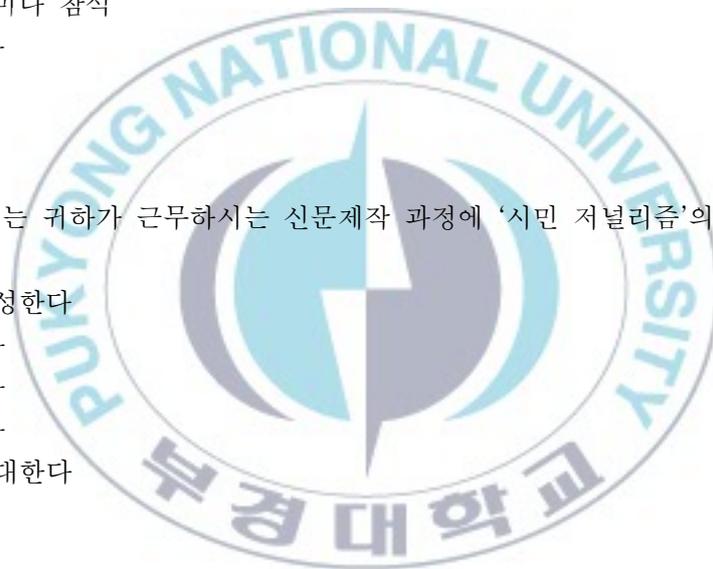
- ① 잘 안다
- ② 어느 정도 안다
- ③ 모른다

7. 귀하께서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진공서적
- ② 인터넷
- ③ 취재과정
- ④ 관련 세미나 참석
- ⑤ 신문기사
- ⑥ 방송
- ⑦ 기타

8. 귀하께서는 귀하가 근무하시는 신문제작 과정에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을 찬성하십니까?

- ① 아주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모르겠다
- ④ 반대한다
- ⑤ 매우 반대한다



◆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 가능성

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 언론 전반을 감안했을 때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높다
- ② 높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낮다
- ⑤ 아주 낮다

10. 귀하는 **본인이 속해 있는 언론사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정도가 어느 정도로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높다
- ② 높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낮다
- ⑤ 아주 낮다

11. 귀하는 ‘시민 저널리즘’ 도입이 여론 형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모르겠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모르겠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13으로

질문 14로

13. 귀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도입이 지역신문 발전에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다양하고 풍부한 기사 소재 발굴
- ② 새로운 독자의 확보
- ③ 신문사 경영 개선
- ④ 취재 인력난 해소
- ⑤ 기사 내용의 공신력 확보
- ⑥ 독자의 참여의식 제고

- ⑦ 지역사회 공론장의 활성화
- ⑧ 지역 중심의 이슈 발굴과 기사보도
- ⑨ 기타 (_____)

◆ 지역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적용범위

14. 귀하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제작현장에 좀 더 도입한다면 귀하는 이에 응할 생각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제작현장에 ‘시민 저널리즘’이 도입될 경우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정치
- ② 경제
- ③ 사회
- ④ 문화
- ⑤ 스포츠
- ⑥ 생활
- ⑦ 과학
- ⑧ 해양수산
- ⑨ 여론/사람

16. 귀하는 제작현장에 ‘시민 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전국적인 이슈**(서울 정치권의 이슈나 부산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중앙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예를 들면 공기업 구조조정, 언론 관련법 국회통과, 자연재해 등)가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② 일부만 가능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불가능하다
- ⑤ 전혀 불가능하다

17. 귀하는 제작현장에 ‘시민 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광역적인 이슈**(부산과 경남 권의 관심 이슈. 예를 들면 거가대교 부·울고속도로 완공 후 지역 간 발전 문제, 부산 경남의 통합 문제, 부산과 경남의 물 사용 갈등 문제 등)가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② 일부만 가능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불가능하다
- ⑤ 전혀 불가능하다

18. 귀하는 제작현장에 ‘시민 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지역적인 이슈**(부산 경남 일부 지역의 이슈. 예를 들면 특정 구나 군 단위 지역의 재개발 문제나 주거환경개선 문제 등)가 어느 정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
- ② 일부만 가능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불가능하다
- ⑤ 전혀 불가능하다

19. 귀하는 귀사에 ‘시민 저널리즘’이 도입될 경우 **신문 제작과정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슈 유형별로 아래의 보기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주시요.

가. 전국 이슈___ 나. 광역 이슈___ 다. 지역 이슈___

- 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 ② 시민이 기자들에게 기획 취재의 내용을 제보하는 수준
- ③ 시민이 취재 작성한 기사를 검토 후 선별, 수정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수준
- ④ 시민과 기자가 함께 취재하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수준
- ⑤ 시민과 기자가 취재와 기사작성을 함께 하는 수준

20. 귀하는 ‘시민 저널리즘’을 적용해 제작한 기사를 게재할 경우, 게재 방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한다
 - ② 종이신문에만 게재한다
 - ③ 온라인신문(홈페이지)에만 게재한다
 - ④ 기타 _____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언급 드리지만 본 자료는 통계의 목적으로 수치상으로만 활용될 뿐 사생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23.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① 부산 ② 경남 ③ 서울 ④ 경기 ⑤ 충청 ⑥ 전라 ⑦ 강원 ⑧ 경북 ⑨ 제주
 - ⑩ 대전광역시 ⑪ 대구광역시 ⑫ 광주광역시 ⑬ 울산광역시 ⑭ 인천광역시 ⑮ 기타
24. 귀하의 ‘출신 고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부산 ② 경남 ③ 서울 ④ 경기 ⑤ 충청 ⑥ 전라 ⑦ 강원 ⑧ 경북 ⑨ 제주
 - ⑩ 대전광역시 ⑪ 대구광역시 ⑫ 광주광역시 ⑬ 울산광역시 ⑭ 인천광역시 ⑮ 기타
25. 귀하의 ‘출신 대학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부산 ② 경남 ③ 서울 ④ 경기 ⑤ 충청 ⑥ 전라 ⑦ 강원 ⑧ 경북 ⑨ 제주
 - ⑩ 대전광역시 ⑪ 대구광역시 ⑫ 광주광역시 ⑬ 울산광역시 ⑭ 인천광역시 ⑮ 기타
26. 귀하의 ‘소속사’는 어디입니까?

- ① 경남도민일보
- ② 경상일보
- ③ 국제신문
- ④ 부산일보

27. 귀하의 신문사 '근무 경력'은 만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_____년

28. 귀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기자 ② 차장급 ③ 부장급 ④ 부국장급 ⑤ 국장급 ⑥ 기타 _____

29. 귀하가 지금까지 편집국 내에서 한 번이라도 소속했던(현 소속 부서 제외, 다음 문항에서 답변함)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당 번호 위에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 ① 정치부
- ② 경제부
- ③ 사회부
- ④ 문화부
- ⑤ 스포츠부
- ⑥ 생활/과학부
- ⑦ 해양수산부
- ⑧ 여론/사람부
- ⑨ 국제부
- ⑩ 사진부
- ⑪ 교열부
- ⑫ 편집부
- ⑬ 기타 (_____)



30. 귀하께서 현재 소속해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_____부

▶ 긴 시간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